



## 스트라타시스, 복합재료 3D 프린팅 신제품군 출시 한 번에 최대 3개 서로 다른 재료 조합 가능

스트라타시스(지사장 다니엘 톰슨, [www.stratasys.com](http://www.stratasys.com))는 지난 9월 18일 독보적인 트리플 젯 기술을 탑재한 복합재료 3D 프린터 '오브젯500 코넥스1'과 '오브젯500 코넥스2'를 출시했다고 밝혔다.

자료제공 | 스트라타시스

트리플 젯 기술은 한 번에 최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해 제품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, 여러 재료를 혼합해 디지털 ABS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재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. '오브젯500 코넥스1'은 대형의 조형 크기와 더불어 한 번의 작업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 파트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사용자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재료로 구성된 제품을 만들거나, 하나의 파트에 고무 재질의 탱고(Tango)와 단단한 재질의 베

로(Vero)와 같이 서로 다른 재질의 재료를 조합해 제작

할 수도 있다. 또한 최대 19.3×15.4×7.9인치(490×390×200mm) 크기의 대형 파트를 만들거나, 한 트레이에서 여러 개의 소형 파트를 제작할 수도 있다. 더 커진 재료 캐비닛은 여덟 개의 카트리지로 구성돼 있어 기존 제품 대비 늘어난 무인 가동 시간과 함께 재료 교체의 필요성을 줄였다. 3D 프린터가 작동 중일 때에도 재료 및 서포트 카트리지를 교체할 수 있는 ' 핫스왑' 기능을 통해 작업 도중에도 중단없이 파트를 제작할 수 있다.

'오브젯500 코넥스2'는 투명, 경질 및 고무 재질의 재료를 하나의 파트에 혼합해 제작할 수 있다. 오브젯500 코넥스1의 모든 기능과 더불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본 재료를 혼합해 새로운 재료나 '디지털 재료'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. 예를 들어, 스트라타시스의 플라젯 방식의 재료 중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디지털 ABS 재료를 제작해 몰드 코어나 단기 사출 성형 등에

활용할 수 있다. 100여개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하나의 파트에 단단하거나 투명 재료를 혼합해 다양한 쇼어 값을 구현하거나, 디지털 ABS와 탱고를 조합해 튼튼한 오버 몰딩 핸들과 그립을 제작할 수도 있다. 오브젯500 코넥스2는 지그나 고정구 등 맞춤형 제조 도구를 제작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.

론 엘렌보겐 스트라타시스 제품 마케팅 수석 부장은 "올해 초 오브젯500 코넥스3를 출시한 이후로 툴링이나 몰드 제작 같은 프로토타이핑 및 제조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복합재료 프린터에 대한 시장 수요를 확인했다"며, "스트라타시스는 트리플 젯 기술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오브젯500 코넥스 제품군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, 이번에 출시되는 두 가지 3D 제조 시스템을 통해 3D 프린팅의 가성비에 있어 새로운 표준을 세워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"고 밝혔다. Ⓞ



오브젯500 코넥스1